

침묵하는 학습자를 돕기 위한 교수법 모색 —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과 소통

김성희¹⁾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침묵하는 학습자
- III.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
- IV. 소통하는 대학 교육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최근에 ‘대학’에 대한 시대적 관심은 단순히 교수자의 ‘연구’만으로 대학이 평가되기보다, ‘잘’ 가르치는 대학에 주목해서, 대학평가를 단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교수현장에서의 적절한 교수법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의실에서 침묵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왜 학습자들은 침묵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학습

1)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자 스스로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의 상실로 인한, ‘현존(있음)’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학습자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달리말해 베이비 붐버(baby boomer) 세대인 교수자와 디지털 유목자(digital nomad) 세대인 학습자 사이의 ‘시대적 차이(gap)’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이유는 사회가 ‘물질주의’를 표방하고,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졸업 이후에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찾아 나서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표면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 주목해서, 침묵하는 학습자와 이들을 어찌 도와야 하는지 모르는 교수자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 야스퍼스가 주목한 [연구 · 교육 · 교수]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소통하는 대학 교육의 저변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소통하는 인격적 만남’이 가능해야 함을 부버의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한다.

〈주제어〉 침묵, 야스퍼스, 부버, 대화와 소통, 교수법, 토론, 철학실천, 관계, 학습자 중심 교육

I. 들어가는 말

1962년에 레이첼 카슨(R. Carson)이 무분별한 살충제와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봄이 왔음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우려한 『침묵의 봄』을 발간했을 때, 과학에 기초한 ‘기술’²⁾이 초

- 2) 인문과학에서 떨어져 나와, 과학이라는 분과학문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빠른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흔히들 ‘과학’과 ‘기술’을 ‘과학기술’로 붙여서들 이해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졌기에 가능한 기술이다. 그러나 적어도 레이첼 카슨이 기술이 초래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경계가 있던 시기로 봐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논자는 중립성을 강조하는 과학이 환경오염을 초래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기술이 환경오염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을 강조해서 기술했음을 밝힌다.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카슨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the silent’에 대해서 ‘고요한’ 혹은 ‘침묵’으로 번역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결단코 ‘고요하지’ 않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교수자는 침묵하는 학습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혹, 침묵하는 학습자에게 교수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논고는 이와 같이 침묵하는 학습자의 원인을 알아 본 후, 교수법의 방향을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대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건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으로 가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 기술함으로써, 침묵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려 한다.

이러한 소통하는 대학 교육이 강의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공간이 자유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대는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강조되는 역할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교양 교육이 갖는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의 집합과 이들의 사유 방식의 차이를 각자 느낄 수 있는 소그룹 토론을 제안한다. 기존의 소그룹 토론과 달리 본 논고에서 강조하는 토론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수업 현장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토론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전자매체를 강의 실과 강의 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강의에 출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석을 하면 팀원들과 교수자가 염려하고 궁금해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속감을 갖도록 이끄는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하려 한다.

이와 같은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친밀감이 높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과 강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버가 『나와 너』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 만남에 기반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먼저’ 학습자에게 만남의 손, 관계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 논자는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학습자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호기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자의 교육환경과 교수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버가 언급하고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진정한 만남’을 통한 소통하는 토론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려 한다.

II. 침묵하는 학습자

몽테뉴는 “놀라움은 철학의 시작이고, 물음은 철학의 진보이며, 무시(無視)는 철학의 종말이다”라고 했다. 발달심리학을 통해서 보아도 어린아이들은 늘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혹은 “그래서?”라고 집요하게 묻는다. 이러한 물음은 중국에 ‘호기심’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어린 아이시절의 질문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는 수강생들의 모습은 ‘침묵하는’ 학습자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자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사적 입장을 보면 인간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결단을 하는 기제에는 이성과 감정 혹은 감정에 기반한 경험과의 논쟁에서 기원한다.

그 중 플라톤에서 연원하는 서양철학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주류를 이뤘다. 사고의 주체인 인간에게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는 능동적인 영

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요지부동하는 수동적 영역이 있다. 인간이 사유의 주체로써 능동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대학에서 만나는 학습자에게 지식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호프만은 능동적 영역이 사유의 주체에게 ‘놀라움’을 가지고 사물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지적한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게으름이 수동적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동적 영역은 될 수 있는대로 놀라움은 피하면서 익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한다. 의식적인 노력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은 인간의 2차적 본성에 속하며 이것은 가끔 1차적 본성과 혼동되기도 한다. 1차적 본성은 감각을 열고 세계로 나아가 익숙한 것의 바깥에 있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능력이다. 놀라움이 바로 이러한 1차적 본성에 속한다. 놀라움에는 1차적 본성에 따라 열린 감각을 가지고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개방성이 들어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다른 영역, 즉 놀라움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본성의 능동적 영역은 수동적 영역까지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다.³⁾

호프만은 일상의 놀라움을 깨우쳐줄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학습자들이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와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철학의 기본 테제가 되는 ‘질문을 던지고,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사고가 학습자에게 주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답을 찾는 학습자들은 왜 ‘침묵’하게 된 것일까?에 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학습자가 대학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스

3) 카이 호프만 지음 · 박규호 옮김, 『철학이라는 이름의 약국』, 더불어 책, 2003, 11~12쪽.

4) 위의 책, 12쪽.

스스로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침묵을 유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학습자 개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을 요구하고, 훈련시키면 되는 일일까? 학습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학습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자가 속해 있는 대학의 현실이 이와 같은 ‘침묵’ 을 불러온 것이라고 봐야 마땅하다.

서보명은 『대학의 몰락』을 통해 현대 대학의 현실은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를 ‘요구’ 하고 있다고 본다.

현대 대학의 모습은 자본주의 바깥에서 이해될 수 없다. …(중략)… 사회와 경제에서 보수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적 이론으로 등장하면서 대학의 자본화가 가속화되었고, 1989년 소련과 사회주의 계열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극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대학은 자본과 경쟁의 체제도 돌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대 대학은 교육만큼이나 생산이나 경쟁이란 용어에 친숙해졌다.⁵⁾

결국 신자본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등장은 대학에 대한 개념적 전환을 불러왔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역사에서 드러난 대학이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대학이 서구 중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유산은 대학의 학제에서 수업의 방식과 학위제도, 그리고 논문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유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유산이다. 물론 중세의 대학이 학문을 체계화하면서 학문과 삶의 분리를 초래했고,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유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인정해야 할 것은 스킨라 철학이 프로나시스(Phronesis, 실천의 지혜)와 같은 삶의 덕목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윤리학과 인간학의 체계를 세웠다는 점이다. 중세 대학의 가장

5)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27쪽.

큰 유산은 변증과 논증을 통한 치열한 학문의 자세와 기독교 세계관의 이상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는 이상주의라 하겠다. 대학의 모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베리타스(Veritas,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나 증명된 공식이 아니다. 진리를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중세의 세계관에서도, 진리는 주어진 지혜의 당위성을 추구하는 사유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 …(중략)… 중세 때에는 신학이라는 형이상학으로 가능했고, 근대의 대학에서는 순수한 과학과 문화라는 이념으로 가능했다.⁶⁾

적어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의 의미, 존립 이유는 ‘학습자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교육’ 이어야 하며, ‘가치중립적인 지식의 전달’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이라는 차축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대학의 교육의 본질은 ‘진리 탐구’를 위한 지식전달이라든지 학습자를 믿어주는 교육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지내면서 결국 학습자는 정책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경쟁이라는 태두리 내에서 스스로의 이기심의 정도와 경쟁의 도전에 따라 ‘침묵의 정도와 기간’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았다. 결국 자본의 유입은 학습자를 학습과 교육의 ‘중심(center)’에서, 가장자리(border)로 내몰았으며, 더 이상 교육의 주체가 아닌 희생양으로 침몰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nominal)’뿐인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침묵’이라는 태도의 변화이다.

III.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

1997년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을 번역한 이수동에 따르면 그의 경험

6) 위의 책, 26~27쪽.

적 고백을 통해서, 왜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전공을 연구하기 보다는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초학문을 닦는 단계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을 단순히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이나 의미하는 것처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과 이상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학인이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단순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 전문학교가 아니라, 대학만이 달성할 수 있는 고유한 이념에 입각하여 연구와 가르침과 교육을 학문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략)… 『대학의 이념』은 우리 대학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필독되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과 학문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문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왜 학문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가를 밝혀준다. 또한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문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의해서 밝히고 있다.⁷⁾

야스퍼스가 언급하는 대학의 역할은 기본에 충실한 교수자의 가르침과 호기심에 기반한 학습자의 앎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야스퍼스는 『대학의 이념』을 총3부로 구성하고, 그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그 중 제1부는 ‘지적 삶’에 대해서, [학문의 본질·정신·실존·이성·교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는 ‘대학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교육·교수·학문의 교류·대학의 제도·학문의 체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대학존립의 필요조건’에 대해서 [인적요소·국가와 사회·재정적 기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야스퍼스의 총3부에 따른 구성

7) 칼 야스퍼스 저·이수동 역, 『대학의 이념 The Idea of the University(약어 IU)』, 학지사, 1997, 3~4쪽.

중에서, 침묵하는 학습자의 원인과 해소 방법에 대해서 제2부에 나타난 ‘대학의 과제’ 중 4장에 나타난 [연구·교육·교수에 대한 야스퍼스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침묵하는 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 대한 생각은 1923년 81쪽 분량의 소책자로 베를린에서 발간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작업을 거쳐서 1933년에 재출간되었다.⁸⁾ 이와 같이 고전(古傳)에 해당하는 야스퍼스의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침묵하는 학습자를 향한 교수자의 연구, 교육-교수법, 그리고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의 토대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장에서는 ‘대학의 과제’ 중에서 야스퍼스가 강조한 ‘연구·교육·교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3-1. 대학의 연구 이념

학습자에게 ‘진학(進學)’이 의미하는 것은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와 더불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⁹⁾

8) *TIU*, p.7-8. 1979년 『시대의 정신적 상황』에서 야스퍼스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1923년 『대학의 이념』이 발간된 이후, 나치 통치하에 추방자로 추적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나치의 지배가 끝나자 이 주제를 새로이 정리했다. 그리고 1947년 Karl Heinrich Bauer에 의해서 『대학의 새로운 정신의 탄생에 대한 1945~1946년에 걸친 문서, 연설문, 강연문』이라는 모음집이 발간되었다. 더불어서 야스퍼스는 ‘대학의 이념은 생동하는 정신이다’라는 군돌프의 〈생동하는 정신을 위하여〉라는 비명을 차용해서, 대학의 이념이 갖는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9) 물론 야스퍼스가 배경으로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직업학교(실습이나 주요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로의 진학과 상위 25%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생이 김나지움에 진학을 해서, 졸업 후 대학으로 계속 진학하게 되는 경우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강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학제도 공업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직업적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기도 한다.

학생은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온다.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할 과제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¹⁰⁾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¹¹⁾

‘순수’ 하게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업과 연구의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리고 학습자는 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한계상황(Grenzsituation)’¹²⁾을 통해서,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서부터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 를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배우기를 원한다. 스승으로부터 그리고 자기단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동료들간의 경쟁적인 토론과 지적 교류를 통해서도 배우고자 한다. 대

10) 인용구 강조는 필자의 임의성이 반영된 것임을 밝힌다.

11) *TU*, p.63.

12) 한스 자너는 그의 저서 《한스자너 저음·신상회 옮김, 『야스퍼스』, 한길사, 1998, 188-189쪽)를 통해서, 야스퍼스 철학의 핵심 개념인 ‘한계상황’ 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현존하는 모든 것은 그때마다 상황 속에 존재한다. 이 상황이라는 개념을 야스퍼스는 심리학적 동시에 물리적이어서 의미에 관계하는 구체적인 현실성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현실성 속에서 각각의 인간은 저마다 자기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현존의 상황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이해 혹은 체험에 의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현존하는 상황이란 우연적이고 변화가능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현실성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우연적인 개개의 상황과 ‘궁극적인 상황’ 을 구별한다. 궁극적인 상황이란 “인간존재 자체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유한한 현존에 불가피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떠나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곧 인간 존재의 상황이며, 그 속에 개별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스퍼스는 이러한 인간존재의 상황을 근본상황(*Grundsituation*)이라 불렀다. 개개인이 이러한 근본상황 속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그것을 한계상황(*Grenzsituation*)이라고 불렀다.

학에서의 이러한 기대들이 성취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최초의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못한다. 아마도 어떤 학생에게는 무엇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대학생활은 실망스럽고 환멸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게 된다.¹³⁾

대학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근원적인 존립의 이유는 바로 ‘지적인 욕구의 충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황하는 학습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물어야할지 모르는 학습자를 ‘보는(seeing)’¹⁴⁾ 교수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첫째, 학문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배움과 연습을 계속하는 일이다.
- 둘째, 노력이 의미와 이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
- 셋째, 지적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¹⁵⁾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혹은 들어본 적이 있음직한 명제들이지만, 실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교수자가 갖추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침묵하는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관점의 전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수자가 연구를 위한 배움과 연습을 꾸준히 하고, 그러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더불어서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에 대

13) *TIU*, p.64. 인용구 강조는 필자의 임의성이 반영된 것임을 밝힌다.

14) 학습자가 침묵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대학교육의 체계가 학습자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이 생기게 되는 교수자와 대학교육은 침묵하는 학습자들을 단지 시각적으로 보는(seeing)활동에서 유심히 살펴보는(scanning)으로 태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논고에서 요구되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 역시 서로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15) *TIU*, p.66-67.

한 ‘양심’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분명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있는 장막을 거둘 수 있는, ‘인적·물적·공간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인들은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대학은 이것을 인식하고 교수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 수집자료, 도서관, 부속병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연구대상물이나 도해(圖解), 각종 기구와 표본 그리고 실험용 도구들을 제공한다.¹⁶⁾

이와 같은 ‘물적 자료의 공유’와 그러한 물적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공간적 장소의 교류’,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연구물품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교수와 학습자간의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보이지 않는 장막(curtain)’의 정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장막을 없애기 위한 ‘신호등’이 켜지게 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전체 세계는 생명력 없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정신도 있다.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의미하는 문화에 대한 자의식은 지식인이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지적으로 발전적인 사람과 교류를 하며, 그러한 경험에 바탕하여 현재를 바라볼 때 명료해진다. 그래서 대학은 사고하는 사람들이 지적 삶을 추구하는 곳이다...(중략)... 대학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인간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만일 대학이 이러한 인간적이고 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에 대학생이 아닌 범인들이 그들에게는 의미도 없는 자료들을 차지하고 있다면 대학은 무력해진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언어학만 있고 철학이 없다면, 기술과 실습은 있되 이론이 없다면, 오직 끝없이 사실만 존재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사상이 없

16) *ITU*, p.68.

다면,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¹⁷⁾

과연 우리는 교내에서 다양한 강좌로 만나는 학습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범인(凡人)’으로 학습자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습자로서의 책무를 갖추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들’ 이기에 교수자 역시 그들의 ‘침묵’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도대체 교수자에게 학습자는 어떤 의미인가? 혹은 의미조차 논할 여유조차 없었던 교수자는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학의 교수와 학생에게는 근원적인 지적 요구가 바로 생명이고, 이러한 지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교수에 대한 고민’¹⁸⁾을 해야 한다. 그 중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하기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역할과 이념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지적 요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학습자와의 입장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 차를 확인하고 정리한 후, 침묵하는 이유, 그리고 교수자가 이와 같이 침묵하는 학습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교육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어떤 이해방식의 차이와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야스퍼스의 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7) *TIU.*, pp.68-69. 몇 년 사이에 대학의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학과개편’이 이와 같은 야스퍼스가 주목하는 대학의 존립 이유와 대학의 이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대학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학습자의 삶의 권리에 주목한다면, 결단, 거칠게 표현해서 ‘돈이 안 되는 학문’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더불어서 이러한 짐작은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대학교육이 얼마나 ‘소통’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18) *TIU.*, p.66.

3-2. 교육관과 교수법

야스퍼스는 ‘교육은 사회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¹⁹⁾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은 인간의 본성이 상황에 따른 윤리적 기반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기적인 존재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홉스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인간의 사회화와 그 역할을 규정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야스퍼스도 이와 같은 점을 직시하였는지 ‘교육에 대한 기본형태’ 3가지를 제시²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을 통해 야스퍼스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고, 성실하며,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게 행동하게 되는 인간성’을 소유하게 된다고 본다. 즉 이러한 인간성을 야스퍼스는 ‘휴머니타스(Humanitas)’²¹⁾라고 칭한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상황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학습자 역시 교수자의 지도에 성실히 임하고 경청한다면, 그 안에서 ‘신비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존경과 경외심’의 창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스스로 수강하기로 결정한 수업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신비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외심’과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수 있다고 보

19) *TIU*, p.74.

20) *TIU*, pp.74~77.

21) *TIU*, p.79.

교육에 대한 기본 형태 (공통된 특징: 경외심 ²²⁾)	특징	한계점
스콜라식 형식 교육	* 단순히 전통을 ‘전수’ 하는데 목 적을 둔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재연할 뿐(독창적 연구에는 관심 이 없다) * 권위(있는 저자와 저술)에 종속시 킨다	* 교사로부터 인격적 관계를 기 대할 수는 없다(교사 자격증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 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도제교육	*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 다 * 동기는 항상 주어져 있다	* 인격체로서의 교사에게 바치 는 존경과 사랑은 우상에 대한 숭배와 같을 수 있다 → 제자 들 스스로를 교사의 권위에 종 속시킴으로써 책임을 덜고 위 안을 찾고자 한다
소크라테스식 민주교육 ²³⁾	* 교사와 학생의 평등관계와 자유 를 바탕으로 한다 * 정해진 교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물음과 무지만이 지배한다 * 교육은 산파의 역할이다 *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진리를 향 한 경쟁의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인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권위’에 따른 명령체계가 아닌, 교
 수자와 학습자의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식 민주교육이 이

22) 스킨라식 교육의 전통에서는 위계화된 종속관계 속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제교육에
 서는 교사의 인격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크라테스식 민주교육은 우주라는 초월적 존
 재 앞에서는 오직 자신의 책임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무한한 정신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
 킨다(IIU, p.77).

23) 야스퍼스는 ‘소크라테스식 민주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기초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
 면, 왜 야스퍼스가 소크라테스 대화법에 기반한 민주교육적 교수법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
 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카이 호프만의 경우는,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감추어진 지식을 밖으로
 드러낸다. 둘째,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 모든 지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통찰을
 이끌어 낸다. 지식은 신뢰할 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무지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질문이 동기와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질문은 계속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결말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카이 호프만 지음·박규호 옮김, 『철학이라는 이름의 약국』, 더불어 책, 2003, 94쪽).

루어진다면, 더 이상 학습자는 침묵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침묵하는 학습자에 대한 경각심이 교육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수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교수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시각적 변화는 야스퍼스의 논의를 따르면, 새삼스러운 논의가 아니다. 단지 시대적 상황과 이론의 교차가 교류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학습자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야스퍼스는 교수법의 외형적 형태에 대해서 ‘강의, 실습, 세미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집단 토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토론 등’²⁴⁾을 제시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스퍼스 역시 강의식 교수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야스퍼스는 ‘강의가 일방적이어서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만 하고, 학생들이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했는지 알 수도 없다’²⁵⁾고 비난했다. 야스퍼스는 훌륭한 강의의 전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연륜과 학문적 깊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강의식 교수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수자 자신의 영향력인 것이지, 학습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스퍼스는 강의식 교수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독설을 한다.

학생들을 교수자의 지적 사고에 끌려들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하게 되면 강의의 숭고한 가치는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 강의는 허식적으로 되고 미사여구로 장식되며, 격하게 되고 인위적인 상투문구로 구사되며, 감정적이 되

24) *TIU*, p.83.

25) *TIU*, p.84.

고 선동적이 되며 후안무치하게 된다.²⁶⁾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강의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의에서 가장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후에 ‘홀륭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야스퍼스 역시 ‘법칙이 없다’²⁷⁾고 못 박고 있다. 그마나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는 자세 야스퍼스는 본다.

다음으로 야스퍼스는 실습에 대해서 언급한다. 실습은 우리가 현재 자연과학 및 공과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자료와 기자재를 실제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개념을 익히는 학문 활동’²⁸⁾을 의미한다.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의 경우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습’하며, 팀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전제 되어야, 실습에 기초한 교수법의 학습자 개개인에게 유익한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계점은 강의를 통해 익힌 내용에 숙지가 없이 공동작업 실습을 하게 된다면,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연구능력의 단련과 추진력’을 성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스는 대학 강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토론’을 들고 있다. 즉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육은 이미 대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능을 갖추고 지적 욕구로 충만된 선별된 학생들’²⁹⁾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론식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환경과 학습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26) *TIU.*, p.85.

27) *TIU.*, p.85.

28) *TIU.*, p.85.

29) *TIU.*, p.87.

〈표 1〉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에 기반한 학습자-교수자 관계의 변화

'침묵하는 학습자'와 교수자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와 교수자
대학교육 -학문의 본질에 대한 논의 부재 -침묵하는 학습자에 대한 무관심 학습자 ……………(단절)………… 교수자	대학교육 -학문에 대한 본질과 대학의 역할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연구·교육·교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 학습자 <----->(소통)<----->교수자

IV. 소통하는 대학 교육

커(C.Kerr)는 『미국 고등교육 고난의 시대, 1990년대와 앞날』 중에서 제7장 「기업과 대학-미국의 경험」에서 서로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 대학과 기업이 산업사회 속에서 상호의존도를 높이면서, 그 갖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회」를 실현한 미국 대학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커는 「교육과 연구의 자유 보장」 그리고 「이의(異義)제기」라는 대학의 문화의 건재를 통해서 소통하는 대학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커의 주장이다.³⁰⁾

기업과 대학은 저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은 특히 고등교육의 「인적 투자」의 측면에서 매력을 느껴 왔다. 한편 학생들은 대학 입학의 소비자적 측면에 즉 「인생의 한 단편」으로서 대학의 경험을 즐기는 일, 그리고 대학을 마친 뒤 자기 자신의 생활을 문화적 수혜를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략)… 대학과 기업은 그 아이덴티티에서는 날로 서로 거리를 증폭하고 이질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또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중략)… 산업계와 대학의 밀접한 관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고 있다.

30) Clark Kerr, *Troubled Time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 The 1990s and Berkeley*, 1994.

- ① 학술 연구의 경향이 경영학, 공학 혹은 지난날 농학이라고 일컬었던 분야 등 기업의 취향에 따르는 영역으로 모아지고 인문학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다
- ② 연구 분야에서도 보다 응용적인 영역의 활동이 활발하다
- ③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기관보다는 대규모의 기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 ④ 대체로 고등교육 제도권에서 사회적 지원이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과학기술 지향의 연구대학,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4년제 칼리지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 ⑤ 많은 교수가 그의 사고·시간·에너지를 교육 및 기초 연구보다는 기업가적인 활동에 소모하여 그 결과 수입이 많은 기업가형 대학인과 수입이 적은 연구지향형 연구자라는 두 계급의 교수층이 생겨났다
- ⑥ 교수 사회에서는 학술적이기 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날로 배양되고 의사지적(擬似知的)인 어둠의 세계의 출현을 촉진한다
- ⑦ 대학 ‘이데올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 ⑧ 공학 및 경영학 같은 학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전’한 분야의 학생 내지 학부의 비율을 증폭시키고 사회학과 같은 대항문화(對抗文化)의 영역을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다

버널과 폴라니는 과학논쟁³¹⁾에 있어서, 사회가 과학을 통제하는가에 있어서 버널은 사회가 과학을 통제해야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폴라니의 경우는 사회가 과학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학교육 내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순수과학의 발전과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소통에 장애막이 생긴 현대 교육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정부-정책이 기반이 된 적절한 개입과 통제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의 장의 초석이 될 수

31) 이상욱 외, 『과학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 2007, 294-303쪽.

있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학습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침묵’을 깨고 학습자 스스로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율권을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교육·교수]에 충실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개설된 과목에 맞는 교수법 개발과 수강생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야스퍼스 역시 대학의 역할 과연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엘리트만을 양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지도하는 일에만 대학의 역할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야스퍼스는 이러한 정책과 이념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대학의 역할과 학문의 본질 앞에 학습자와 교수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은 혹은 이러한 ‘평범한 학습자’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가지고 지도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육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위안을 준다. 단지 교수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³²⁾은 그리고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교수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자극하도록 하는 동력을 ‘소통’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소통하는 대학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소통하는 토론을 하기

32) 야스퍼스는 ‘교수와 학생이 강의계획, 교과과정, 시험 그리고 주어진 과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보았다. 즉 교수의 역할과 대학교육이 학습자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은 ‘틀에 박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인식능력의 배양, 연구에 대한 모험심 그리고 예측능력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본다.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원만한 관계를 부버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소통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그룹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기재를 살펴볼 것이다.

4.1. 소통하는 토론을 위한 방법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일상을 사는 학습자들에게 더 이상 인터넷, SNS,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과 문구 등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 세상이자 자신을 대변하는 또 다른 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굿맨과 같은 노선을 취하면서, 현대 학습자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굿맨(N. Goodman)이 『세계를 만드는 방식들(Ways of Worldmaking, 1978)』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계란 인위적으로 가공된 인공물에 불과하다. 굿맨에 따르면 세계는 단어, 수, 그림, 소리와 같은 지호들로 짜여진 일종의 버전(version)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유 방식이라고 한다면, 교수자가 만나는 학습자들에게 사이버공간을 취하고 있는 다양한 양식으로서의 세계는 ‘진짜세계’이다. 교수자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짜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습자들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강의 첫 시간에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시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가능하게 된다. 부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저변에는 ‘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수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교과목을 한 학기 동안 꾸러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스스로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어떤 매체로 접근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수자들이 학습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자를 ‘수평적 인격적 관계’로 대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본다.

부버의 관계에 대한 인격체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개체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들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자기만이 최고인양 생각하면 사는 폐쇄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와 자기 세계 외의 어느 것도 인정치 않고 오직 개체의 독립성만이 강조된다. 두 번째 단계는 누군가의 노크에 응하여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만의 세계 외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 열린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체가 인격체화하면서 개체의 독립성이 인격체의 독립성이라는 다른 존재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존재 사이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창문을 활짝 열어 밝고 따뜻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된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 즉 타자의 타자성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³³⁾

교수자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자를 수평적 관계로 대하고, 그들의 세계와 세계관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 역시 교수자와 ‘편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교내 학습 게시판, 카페 혹은 일반 포탈의 블로그 등의 사이버공간을 할당해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익명으로 혹은 실명으로 밝힐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³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와 눈높이를 맞춘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도 수반되어야 하는 노력이자 실천이다. 즉 학습자와 학습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자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

33) 최성식, 『소통과 공존의 철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91쪽.

34) 교수자의 영향력에 따라서는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혹은 개인 연락처를 학습자와 공유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보이는 벽을 보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이 왜 이 수업을 수강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수강하는 수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자의식이 있을 때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공존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버가 언급하는 만남과 관계 그리고 대화를 통한 소통이 중요함을 할 수 있다.

4.2. 소그룹 토론

아무리 소그룹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습자들에게 토론은 여전히 어려운 짐이다. 그리고 수업이 토론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학습자들은 수강철회의 이유로 ‘토론이 주는 부담감 때문’ 이라고 답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론을 진행해야 할까?

소그룹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 인원 에 대한 적절한 배정이 중요하다. 대체로는 토론 조를 짜는데 있어서 교수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소통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자가 스스로 토론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개설해 둔 인터넷 상의 학습 카페를 통해서, 일정 기간의 선호하는 토론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다. 설정한 기간 내에, 카페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학습자 스스로 토론 주제를 댓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토론주제 선택기간이 끝난 이후에 교수자가 임의로 토론주제 선택에 부합하는 인원이 미달인 곳으로 옮겨거나 임의로 배정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수강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을 높힐 수 있다.

6조 과학은 열린비판과 반증을 통해 나온다

선착순 4명 (2주차 3월14일까지 : 자유롭게 토론주제 선택가능)

- 도시09최원석 13.03.07. 10:24
도시공학과 최원석입니다~
- 09 이민재 13.03.07. 14:41
도시공학과 이민재입니다
- 나병훈 13.03.08. 13:38
기계공학부 나병훈입니다
- 12 이현영 13.03.08. 13:53
영어교육과 이현영입니다
- 컴퓨터전공 12학번 이대식 13.03.14. 10:48
컴퓨터전공 이대식입니다

둘째, 토론을 통해 짜여진 조원들의 논의에 대해서 교수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자세이다. 토론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이견이 있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토론이 추구하는 적합한 수업 목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학습자들은 타자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대화'가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토론이후의 각 조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후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해서 각 조가 논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를 대표해서 혹은 조의 일원으로써 서로서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교수자는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학습자간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수자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교수자는 모든 토론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토론에 대해서 개

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언행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교수자의 이와 같은 언행은 토론의 흐름을 교수자가 칭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V. 나가는 말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실존은 인간의 속성을 근대의 이성 중심적 사유로 정형화하려는 시도의 반발만큼이나, 학습자 개개인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구축하는 ‘현존’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존으로써 의미를 갖는 학습자 개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리’만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학습자의 태도에 대해서 교수자는 주목하기 보다는, ‘침묵’하는 학습자를 방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스퍼스는 이와 같이 침묵하는 학습자의 침묵을 깨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진정한 ‘대학의 이념’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연구·교육·교수]를 통해 해명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첫째, 학습자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연구가 어떤 의미의 연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에 대한 재고가 있다면,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폈다.

둘째, 학습자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존중’-신비적 의미를 갖는 ‘경외심’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살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논의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자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수가 ‘어떤 교수

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교수'자를 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에서 더 나은 교수법이 개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수평적 관계에 의거한 인격적 만남과 관계형성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먼저 학습자와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침묵'하는 학습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문자를 넘어 대화로써의 관계가 있어야 대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즉 사람과 사람-교수자와 학습자와의 만남, 그리고 교육목표와 이들과의 관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가 갖는 현시대적 의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희·박병준·홍경자, “인간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인문교양”, 『교양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 김성희, “‘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한 토론 교육: 서강대 팀티칭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102
- 김성희, “힐링(Healing)으로서의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서강대학교 출판부, 『대학과 학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2
-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 에드워드 쉴즈 저, 안계춘 옮김, 『대학의 이념과 학문의 윤리*The Academic Ethic*』, 나남, 1983
- 이광주, 『대학의 역사』, 살림출판사, 2008
- 이상욱 외, 『과학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 2007
- 제니퍼 워시번 지음, 김주연 옮김, 『대학 주식회사*University INC.*』, 후마니타스, 2011
- 칼 야스퍼스 저 · 이수동 역, 『대학의 이념』, 학지사, 1997
- 카이 호프만 지음 · 박규호 옮김, 『철학이라는 이름의 약국』, 더불어 책, 2003
-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 최성식, 『소통과 공존의 철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 한스자너 지음 · 신상희 옮김, 『야스퍼스*Karl Jaspers*』, 한길사, 1998
- A.N. 화이트헤드 지음, 오영환 옮김,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궁리, 2004
- A.P. McGlynn, *Teching Today's College Students : Widening the Circle of Success*, Atwood Publishing Madison, WI, 2007
- Clark Kerr, *Troubled Time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 The 1990s and Berkeley*, 1994
- G.M. 로빈슨 · J. 몰튼 지음, 하인호 옮김, 『대학의 갈등*Ethical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예지각, 1987

※ 이 논문은 2013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3년 7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한 뒤
 2013년 8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3년 8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Abstract◆

Teaching method for helping Silent Student
-based on K.Jaspers The Idea of the University
communication-

Kim, Seong Hee(Hanyang University)

These days, it is important to teaching well better than 'researching'. Because they are focused 'silent student' in the class. There are many reasons that situations. Especially, 'silent student' didn't consider themselves, they just live on it. They didn't know 'why they live' and they didn't have 'what I want' for their future. Firstly, 'silent student' didn't communicate their teachers. Because of 'gap of generations'; age of silent student is 'digital nomad', otherwise teachers age are 'baby boomer'. Secondly, student live on 'materialism', so they didn't have time to thinking about 'their future or dream', it is so afraid that they just force to think 'seeking a job for money'. Therefore, on this paper, I concern or suggest to solve this problem on the base of 'The Idea of the University' written by K.Jaspers and communication on the base of meeting with respect both 'teacher and student.'

Key Words: silence, K.Jaspers, buber, dialogue and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discuss, philosophy practice, relation, learner-centered education

www.kci.go.kr